

# 대한상의 브리프

대한상의 기업정책팀

제132호 2020년 9월 28일



편집자주

21대 첫 정기국회 개원을 맞아 대한상의는 경제 관련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상의리포트 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상의리포트를 중심으로 국회에 발의된 주요 법안들의 내용 과 개선·보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 국회에 경제입법 방향 제시 : 기업부담 줄이고 법제도 혁신

21대 첫 정기국회가 9월 개원했다. 이번 국회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지원 법안이 다수 논의 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도 많이 발의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1일 상법공 정거래법 등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주는 법안들을 신중히 논의해 달라는 내용의 ‘주요 입법현안에 대 한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

본고에서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현재 국회에 어떤 기업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었는지, 이 법안들이 국 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개선·보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자 한다.

### 기업부담법안 40% 증가

상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 후 3개 월간('20년 6~8월) 발의된 부담법안은 284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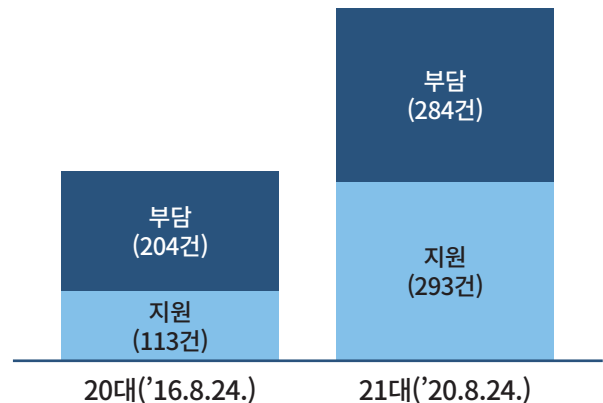
20대 국회와 비교하면 부담법안이 약 40% 늘었다. 이 중에는 상법, 공정거래법 등 기업경영에 영향이 큰 법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원법안의 경우 더 많이 늘어났으나 이는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 지원 등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상의는 리포트에서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 되는 11개 신중논의 과제(13개 법안)를 선별해 경제 계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 [ 20·21대 국회 지원·부담법안 추이 ]

	21대		20대	
	3개월 ('20.6.1.~8.24.)	3개월 ('16.5.30.~8.24.)	3개월	전체
지원 법안	293	113		1,229
부담 법안	284	204		1,018



이와 함께 ①코로나 피해 지원 및 투자 활성화 ②미래산업 발전 ③서비스업 발전 ④기업경쟁환경 개선 등 4대 부문 27개 조속입법과제(41개 법안)에 대한 의견도 국회에 함께 전달했다.

##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신중한 논의 필요

### 감사위원 분리선임, 투기펀드 악용 등 우려

먼저 감사위원 분리선임은 1주 1의결권이라는 주식회사제도와 시장 원칙의 근간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투기펀드에 의한 적대적 M&A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주주총회에서 먼저 이사를 일괄선임(대주주 3% 의결권 제한 미적용)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3%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감사위원이 될 이사에 대해 처음부터 3%를 적용해 독립적 감사위원을 뽑겠다는 것이다. 건전한 감시 세력을 통해 대주주의 독단경영을 견제하자는 것이 그 취지이지만 실제로는 해외 투기펀드에 악용될 소지만 커진다. 소액주주나 시민단체가 대기업 지분 3% 이상을 갖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상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도입은 신중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꼭 도입해야 한다면 ‘투기펀드 등이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회에 진출하려고 시도할 경우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 3%를 풀어줄 것’을 대안으로 요청했다.

### 내부거래 규제 확대, 지주회사 역차별 소지

상의는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내부거래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처럼 내부거래 규제대상을 획일적으로 확대하면 자회사 지분율이 평균 72.7%(상장 40.1%, 비상장 85.5%)에 달하는 지주회사 소속기업들은 대부분 내부거래를 의심받는 규제대상이 된다.

지주회사의 경우 그 특성상 지분율이 높고, 소속기업 간 내부거래도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그동안 지주회사 도입을 장려해왔는데 이제 와서 획일적으로 규제하면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상의는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지주회사가 아닌 기업 및 지주회사 소속기업이 지주회사 밖 계열사와 거래하는 등의 경우에 대해 적용하고, ‘지주회사 소속기업들 간에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 노조법 개정(안) 등... 보완책 마련되어야

상의는 이밖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직자까지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개정안’에도 신중 입법을 요구했다. 정부 개정(안)이 노동권 강화에 치중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어, 기업 방어권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 [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문제조항 및 상의대안 ]

구분	조항	문제점	상의대안
상법	① 감사위원 분리선출	투기펀드 악용, 기업기밀 유출 가능성	주주제안 시 3%를 적용배제
	② 다중대표소송제	주주 간 이해상충 소지	소송요건 강화(지분 50%→ 99%)
공정거래법	① 내부거래 규제대상확대	지주회사에 대한 역차별 소지	지주회사 자회사 간 거래 적용 배제
	②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재산권 침해, 사회공헌활동 위축 소지	소급 배제, 성실공익법인 배제 등

# 대한상의 브리프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또한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한전·수은·산은·무보 등의 석탄화력발전 해외수출 지원을 금지하는 ‘해외석탄발전 투자금지 4법’ ▲계열사 보유주식 평가기준을 취득원가 대신 시가로 전환하는 ‘보험업법’ 등에 대해서도 실효성과 기업부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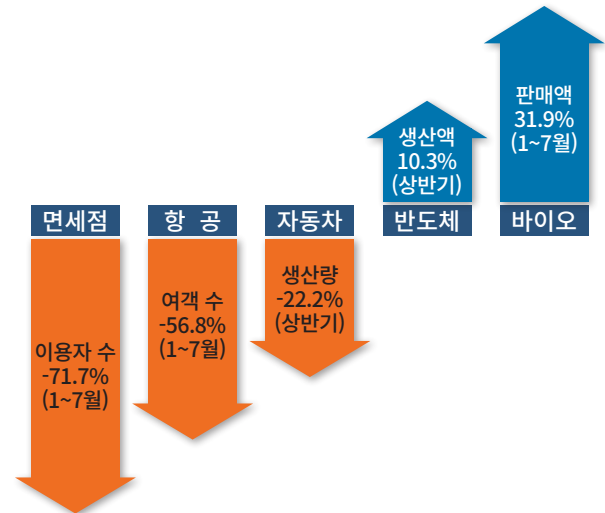
## 코로나 피해 극복에 국회가 나서야

한편 상의는 코로나 피해산업 지원과 신산업·서비스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조속입법이 필요한 법안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법안을 조속히 발의·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 車개소세 인하 등 적극적 세제 지원 필요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여행·면세점·항공·자동차 산업 등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만큼 ▲상반기 종료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면세점 특허수수료 한시적 감면, ▲항공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 코로나19 주요 업종별 피해상황 ]



※ 자료 : 산업연구원, 주요 업종별 협회

상의는 또 ▲코로나 사태 등으로 적자가 난 중소기업들이 기납부세액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의 한시적 확대(현행 1년 → 3년) ▲코로나 유급휴가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기업 설비투자 세제 지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 [ 조속입법과제 주요내용 ]

입법 현안	주요 과제
1. 코로나 피해 지원 및 투자 활성화 (4개 과제)	· 코로나 피해산업 지원(개별소비세법·관세법 등) ·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세제 지원 확대(조세특례제한법)
2. 미래산업 발전 (8개 과제)	· 산업용 드론 활용 법제화 등 신산업분야 낮은 법제 개선 · 5G·AI 융합 신산업 규제 정비(개인정보보호법 등)
3. 서비스산업 발전 (7개 과제)	· 서비스산업 발전 지원(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비대면 의료산업 활성화(의료해외진출법·약사법)
4. 경영환경 개선 (8개 과제)	· 경영권 방어수단 확대(상법) · 가업승계제도 개선(상속세 및 증여세법)


## 자율주행·5G 등 신산업 법정비도 시급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해 자율주행·5G·AI·드론 등 신산업 발전 기반 마련도 시급하다. 이와 관련해 상의는 자율주행·5G·AI·드론 등 융합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사람 대신 IoT 등 시스템에 의한 원격제어·검사 등이 가능하도록 스마트공장·스마트선박 관련 제도장애 개선 ▲사전등록된 드론에 대해서는 안전 조건 충족하고, 사전신고 시 시설점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입법 지원 필요성도 건의했다.

이밖에 9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제정도 요청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창업·R&D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법안이지만 그동안 의료 분야 포함여부를 둘러싼 논쟁으로 계속 제정이 미뤄지고 있었다. 상의는 법 제정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는 만큼, 네거티브 방식으로 입법 후 세부 업종에 대한 적용여부는 정책수립단계에서 별도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 합리적 대안 논의하는 국회가 되길

우리는 지금 ‘저성장 고착화나 재도약이나’의 기로에 서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큰 위기를 겪고 있지만, 동시에 4차 산업혁명과 K-방역 성공 등 국가 명운을 바꿀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것도 사실이다.

21대 국회에서만큼은 기업 관련 규제 신설·강화 시 기업현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합리적 대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입법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21대 국회가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법제들도 조속히 정비해 우리경제의 변화와 혁신의 길을 열어주기를 기대한다. 

# 국내·외 경제지표

2020년 9월 28일 기준

## 1. 국내·외 경제성장률

(단위 : %)

	2018	2019 <sup>(E)</sup>	IMF		OECD	
			2020 <sup>(P)</sup>	2021 <sup>(P)</sup>	2020 <sup>(P)</sup>	2021 <sup>(P)</sup>
한국	2.9	2.0	-2.1	3.0	-0.8	3.1
세계	3.6	2.9	-4.9	5.4	-6.0	5.2
미국	2.9	2.3	-8.0	4.5	-7.3	4.1
중국	6.6	6.1	1.0	8.2	-2.6	6.8
일본	0.8	0.7	-5.8	2.4	-6.0	2.1
EU	1.9	1.3	-10.2	6.0	-9.1	6.5

\* E -잠정치(Estimate) / P -예상치(Projections)

## 2. 환율·유가<sup>1)</sup>

(단위 : 원(환율), 달러(유가))

	2017	2018	2019	'20.4월	5월	6월	7월	8월
원/달러	1,131	1,100	1,166	1,225	1,229	1,210	1,199	1,187
원/엔(100엔)	1,009	996	996	1,135	1,146	1,125	1,122	1,120
원/위안	167.5	166.4	166.4	172.9	172.5	170.7	170.9	171.1
원/유로	1,276	1,299	1,299	1,332	1,339	1,362	1,373	1,403
유가(Dubai)	53.2	69.7	63.5	20.4	30.5	40.8	43.3	44.0

## 3. 산업지표

(단위 : %(전년동기대비))

	2017	2018	2019	'20.4월	5월	6월	7월	8월
산업생산	2.6	1.6	0.6	-5.2	-5.7	0.7	-1.6	-
소매판매	1.9	4.3	2.4	-2.2	1.7	6.3	0.5	-
설비투자	14.4	-3.6	-6.2	1.9	3.4	13.8	6.7	-
수출	15.8	5.4	-10.4	-25.6	-23.8	-10.8	-7.1	-9.9
수입	17.8	11.9	-6.0	-15.8	-21.0	-11.2	-11.6	-16.3

1) 환율은 월 평균 기준, 유가는 기말 기준